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하연** · 박주희***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인지정서조절전략이 관계적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31명의 중학생(남녀 각 258명, 173명)을 대상으로 Marsee, Kimonis and Frick(2004)의 또래 갈등 척도, Barber(1996)의 심리적 통제 척도, 그리고 Garnefski, Kraaij and Spinhoven(2001)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수준이 높을수록 중학생이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중학생이 긍정적 정서조절전략을 덜 사용하고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을 자주 사용할수록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셋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가 유의했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영향은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을 자주 사용하는 집단에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관계적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중학생, 관계적 공격성, 심리적 통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본 논문은 2014년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juheepark@yonsei.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를 연결하는 과도기로서 발달 단계상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특히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들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을 시작하고 또래관계를 확장하면서 더욱 다양한 적응문제에 직면하게 된다(Lerner & Steinberg, 2009). 이와 같이 개인의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는 중학생들에게 복합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과격하고 충동적으로 표출하는 공격성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Blitstein, Murray, Lytle, Birnbaum & Perry, 2005).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2012)의 조사결과 우리나라 중학생의 경우 다른 연령 집단보다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점차 집단화, 다양화되어가는 중학생의 공격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중학생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상대방에게 직접 해를 가하는 외현적 공격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관계적 공격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왔다. 관계적 공격성이란 공격적 행동의 표출이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드러나는 외현적 공격성과는 달리 집단의 일원을 교묘한 방식으로 소외시킴으로써 우정관계 또는 소속감에 의도적인 해를 가하는 공격 형태로 정의된다(Crick & Grotpeter, 1995). 구체적으로 뒷말하기, 소문 퍼트리기, 집단에서 소외시키기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적 공격성은 외현적 공격성에 비해 관찰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간과되어 왔으나 실제로 아동기 후기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감소하는 외현적 공격성과는 달리(서미정, 2012; Brame, Nagin & Tremblay, 2001), 분노, 적대감을 보다 발전된 방식으로 표출하는 관계적 공격성은 오히려 사회지능이 발달하는 중학교 시기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이홍, 김은정, 2012; Tiet, Wasserman, Loeber, McReynolds & Miller, 2001). 뿐만 아니라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또래에 대한 자기 개방성이 증가하면서 분노, 불평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친밀한 또래관계 안에서 교묘하게 표출함으로써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Crick, Ostrov & Werner, 2006). 이러한 관계적 공격성은 외로움이나 또래거부와 같은 심리적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Grotzinger & Crick, 1996)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이 있어 청소년기 이후의 사회적 관계에 장기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Crick & Nelson, 2002). 따라서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과 중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관계적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요인은 가족 변인과 개인 변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가족변인 중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가 또래 관계에서 요구되는 사회, 행동적 기대를 습득하고 사회적 행동을 학습하는 주요 발달 맥락(Maccoby, 1992)이라는 점에서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 간주되어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자녀 관계의 질(Murray, Dwyer, Rubin, Knighton-Wisor & Booth-LaForce, 2013)과 부모애착(Michiels, Grietens, Onghena & Kuppens, 2008) 등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보고되어 왔다. 특히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이 타인을 교묘한 방식으로 조종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개념적 유사성을 가지기 때문에(Kuppens, Laurent, Heyvaert & Onghena, 2013) 최근 들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한은미, 2014; 현지은, 2010; Nelson, Yang, Coyne, Olsen & Hart, 2013).

심리적 통제란 죄책감 유발, 애정철회 등과 같은 심리적 조종 과정을 통해 자녀의 심리적 발달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교묘한 유형의 통제로 정의된다(Barber, 1996). Nelson과 Crick(2002)에 따르면,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사랑을 철회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부모의 자녀는 친구에 대한 분노표현으로 친구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집단에서 소외시키거나 우정을 철회하는 등 자신의 부모와 매우 유사한 행동 특성을 보인다(Reed, Goldstein, Morris & Keyes, 2008). 이는 사회학습 이론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부모가 자녀에게 심리적 통제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녀가 부모의 행동을 관찰, 모방하여 또래관계에서 관계적 공격 전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Bandura, 1978).

뿐만 아니라 수용-거부 이론(acceptance-rejection)에 따르면(Rohner & Pettengill, 1985),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가할 경우 자녀의 심리, 사회적 욕구를 민감하게 채워

주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분노와 좌절을 높여 또래관계 내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Nelson, Hart, Yang, Olsen & Jin, 2006; Nelson et al., 2013). 이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심리적 거부를 경험함으로써 느끼는 분노와 좌절을 다양한 유형의 공격성으로 표출할 수 있지만, 부모의 높은 심리적 통제를 받은 자녀의 경우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문제행동이 다시금 부모의 애정 철회와 같은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 부정적인 정서를 눈에 띄지 않는 교묘한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는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유아(신유립, 2010) 및 초등학생(김민정, 도현심, 2001)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을 뿐 초기 청소년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Kuppens et al., 2013),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의 욕구가 증가하는 청소년 시기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고된 바 있어(Barber & Harmon, 2002)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을 살펴 본 소수의 연구들은(한은미, 2014; Loukas, Paulos & Robinson, 2005)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구분하지 않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을 연구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버지의 심리적인 통제와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Yang et al., 2004). 또한 중학생이 경험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양상은 서로 다를 가능성이 크므로 각각의 관계에서 심리적 통제를 따로 측정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어(Rogers, Buchanan & Winchell, 2003)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모두 포함하여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포함한 가족 요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개인 특성도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 정서가 가지는 기능에 대하여 설명한 기능주의적 관점(functionalist perspective)에 따르면, 관계적 공격성은 슬픔이나 분노의 정서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된다(Barret, 1994). 구체적으로 Barret는 슬픔의 정서는 타인과의 친밀함을 느끼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표 행동의 기반이 되며,

분노의 정서는 타인을 해하거나 복수함으로써 자신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행동을 촉발시킨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교묘한 방식으로 타인을 해하는 관계적 공격성은 슬픔과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지 못할 때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다(강다점, 장재홍, 2013; Bowie, 2010; Sullivan, Helms, Kliwer & Goodman, 2010). 그러나 슬픔이나 분노 등의 부정적인 정서자체가 관계적 공격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지적으로 재해석하는가에 따라 관계적 공격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Peled & Moretti, 2007). 특히 인지적 발달이 더욱 정교화되는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스스로 평가하고 인지하는 이해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에(Garnefski, Kraai & van Etten, 2005) 이러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관계적 공격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발된 부정적인 정서를 인지적으로 다루는 개인 고유의 대처능력으로서(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당면한 문제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고 수용하며 계획을 다시 점검하는 등의 긍정적인 정서조절전략과 타인이나 자신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정서와 생각을 반복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등의 부정적인 정서조절전략을 포함한다. 선행연구(민귀식, 2001; Remillard & Lamb, 2005)에 따르면, 긍정적인 정서조절전략을 자주 사용할수록 부정적인 정서가 감소되어 관계적 공격성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반면,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을 자주 사용할 경우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적대감이 높아져 관계적 공격성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배재현, 최보가, 2006; Peled & Moretti,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조명한 연구자들은 대체로 긍정적 정서조절 혹은 부정적 정서조절 중 한 측면만을 포함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었다(전미숙, 손은정, 2013; Peled & Moretti, 2010). 그러나 한 개인이 긍정적, 부정적 전략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Garnefski et al., 2001)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전략의 영향에 차이가 있으므로(배재현, 최보가, 2006)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양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강화

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된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유발된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와 생각에 대하여 인지적 재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정서와 행동의 변화로 연결되어(John & Gross, 2004)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미숙과 손은정(2013)의 연구에 의하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 자체에 집중하여 반복적으로 생각하거나 타인과 자신을 비난하는 등의 부정적인 정서조절전략을 자주 사용할수록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조절할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였다. 그러나 긍정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을 모두 포함하여 조절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학생의 인지조절전략이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관계적 공격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 중학생의 성과 학년을 통제변인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격성의 발달체적과 관련된 메타분석 결과에 의하면, 초기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적 공격성의 발생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Archer, 2004). 또한 관계적 측면에서 자아정체성을 발달시키고 소속감을 중시하는 여아가 보다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남아보다 관계적 공격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어(Hodgson & Fischer, 1979; Malove, 2012) 중학생의 성과 학년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학교 청소년들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심리적 통제(부의 심리적 통제, 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긍정적 정서조절전략, 부정적 정서조절 전략)은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중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세 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학생 431명이었다. 중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중학교 시기는 외현적 공격성이 감소하고 관계적 공격성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이홍, 김은정, 2012; Tiet et al., 2001). 또한 관계적 공격성의 대표적 유형인 또래 괴롭힘 발생 비율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에 비해 중학교 학생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교육과학기술부, 2012)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대상은 남학생 258명(59.9%), 여학생 173명(40.1%)이었고,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51명(35.0%), 2학년 156명(36.2%), 3학년 124명(28.8%)이었다. 한편,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62.6%), 전문직(23.0%), 판매직(6.5%), 기타(5.6%), 생산직(1.9%)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주부(52.7%), 전문직(19.1%), 사무직(17.9%), 기타(7.4%), 판매직(3.7%), 농업(0.2%)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관계적 공격성 척도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영경(2008)이 번안한 Marsee, Kimonis and Frick(2004)의 자기보고형 또래 갈등 척도(Peer conflict scale, PCS)를

사용하였다. 원래 이 척도는 관계적 공격성과 외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각 20개 문항씩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에 해당하는 20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20점에서 8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의 일원을 교묘한 방식으로 소외시킴으로써 우정관계 또는 소속감에 의도적인 손상을 주거나 상대방에 관련한 부정적인 소문을 내며 상대방에게 교묘한 방식으로 해를 가하는 관계적 공격성의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20개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83이었다.

2)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숙영(2007)이 번안한 Barber(1996)의 자기보고형 부모 심리통제척도(PSC-YSR: 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 Report)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의 자기표현 제한, 감정 불인정, 비난, 죄책감 유발, 애정철회 및 불안정한 감정기복 등을 측정하기 위한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이 척도의 가능한 총점 범위는 16점에서 6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죄책감 유발, 애정철회 등과 같은 심리적 조종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 발달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교묘한 통제를 가한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대해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 16개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아버지의 경우 .90, 어머니의 경우 .91이었다.

3)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

중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김소희(2004)가 번안하고 수정한 Garnefski et al.(2001)의 자기보고형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관련된 20개 문항과 부정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관한 16개 문항, 총 36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은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것과 같이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수용, 긍정적 재해석, 조망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정적 재초점화 등을 포함한다. 반면, 부정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타인이나 자신을 비난하는 등의 정서 중심적이고 문제 회피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뜻하며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 등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긍정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정적 정서조절 전략의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긍정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이 20점에서 100점, 부정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이 16점에서 8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정서조절전략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긍정적 정서조절 전략이 .91,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이 .82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서울과 경기도 소재 세 개 중학교의 14개 학급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총 535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이중 519부가 회수되어 질문지 회수율이 약 93%였다. 그 중 부모의 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현재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아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묻는 문항에 답하지 않은 자료와 누락된 반응이 다수 포함된 자료 총 88부를 제외하고 총 43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제변인인 성과 학년을 포함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 그리고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때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통제변인을 포함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산성의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mean-centering)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부의 심리적 통제, 모의 심리적 통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긍정적 정서조절, 부정적 정서조절)을 독립변인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성과 학년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고, 그 분석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1단계에 투입한 성별, 학년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아버지, 어머니 모두의 심리적 통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beta = .23, p < .001$)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beta = .17, p < .01$)의 수준이 높을수록 중학생이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N = 431$)

구 분	1단계 β	2단계 β
성별	-.07	-.06
학년	-.01	-.03
부의 심리적 통제		.23***
모의 심리적 통제		.17**
긍정적 정서조절전략		-.12*
부정적 정서조절전략		.10*
R^2	.05	.16***
ΔR^2		.16***
F	1.15	13.80***

* $p < .05$, ** $p < .01$, *** $p < .001$

또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경우 긍정적 정서조절전략을 덜 사용할수록($\beta = -.12$, $p < .05$),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을 자주 사용할수록($\beta = .10$, $p < .05$)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부정적인 정서와 생각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재인식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은 긍정적 정서조절전략을 자주 사용할수록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낮음을 뜻한다. 반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타인과 자신에게 원인을 돌리는 등의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을 자주 사용할수록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회귀 방정식에 투입된 변인들은 관계적 공격성 변량의 총 16%를 설명하였다.

2.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긍정적 정서조절전략,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위계적 중다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통제변인인 성별과 학년을, 2단계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부의 심리적 통제, 모의 심리적 통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긍정적 정서조절전략,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을, 그리고 3단계에서는 심리적 통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간의 네 개의 상호작용항(부의 심리적 통제와 긍정적 정서조절전략, 모의 심리적 통제와 긍정적 정서조절전략, 부의 심리적 통제와 부정적 정서조절전략, 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을 투입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한편, 공차한계는 .61-.88, 분산팽창지수는 1.13-1.61로 나타나 각 예측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

($N = 431$)

구 분	1단계 β	2단계 β	3단계 β
성별	-.07	-.06	-.06
학년	-.01	-.03	-.02
부의 심리적 통제		.23***	.22***
모의 심리적 통제		.17**	.15**
긍정적 정서조절전략		-.12*	-.11*
부정적 정서조절전략		.10*	.08
부의 심리적 통제 × 긍정적 정서조절전략			-.02
모의 심리적 통제 × 긍정적 정서조절전략			-.05
부의 심리적 통제 × 부정적 정서조절전략			.17**
모의 심리적 통제 × 부정적 정서조절전략			.18**
R^2	.05	.16***	.19*
ΔR^2		.16***	.03*
F	1.15	13.80***	9.88***

* $p < .05$, ** $p < .01$, *** $p < .001$

분석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부의 심리적 통제, 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투입된 3단계의 회귀방정식($F = 9.88$, $p < .001$)에서 부의 심리적 통제와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항($\beta = .17$, $p < .01$)과 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항($\beta = .18, p < .01$)이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하여 추가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의 부정적 정서조절전략 수준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의미한다. 3단계에 투입된 두 개의 상호작용항은 추가적으로 3%를 설명하며, 회귀방정식에 포함된 변인들은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변량의 총 19%를 설명하였다.

한편,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의 사용 빈도에 따라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연속 변인인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하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의 종속변인치 평균값을 산출하였으며,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바와 같이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의 총점 분포에 따라 전체를 상, 하 두 개 집단으로 나눈 후, 각 집단 별로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회귀계수를 산출하였고 이를 비교한 결과는 각각 그림 1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상집단의 회귀계수는 .39, 하집단의 회귀계수는 .28으로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을 자주 사용할 경우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을 덜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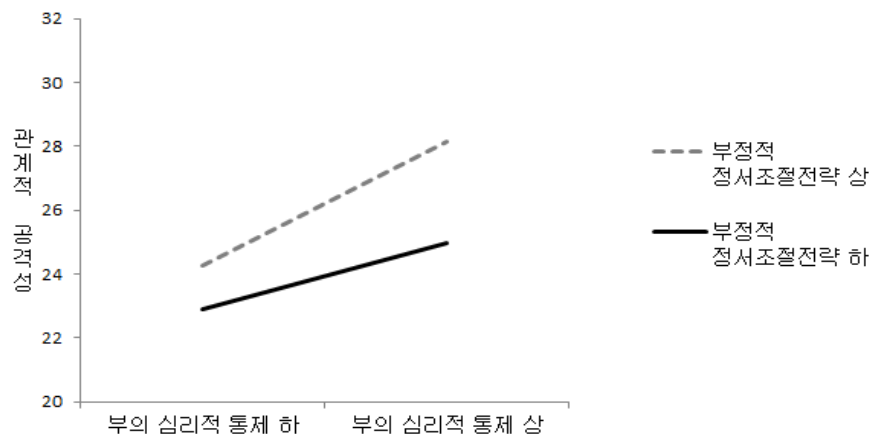


그림 1.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

표 3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에 따른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관계

부정적 정서조절전략 \ 변인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관계적 공격성
상집단(n = 220)	$\beta = .39^{***}$
하집단(n = 211)	$\beta = .28^{**}$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 정서조절전략 사용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앞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각각 그림 2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상집단의 회귀계수는 .42, 하집단의 회귀계수는 .22으로 나타나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을 자주 사용할 경우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을 덜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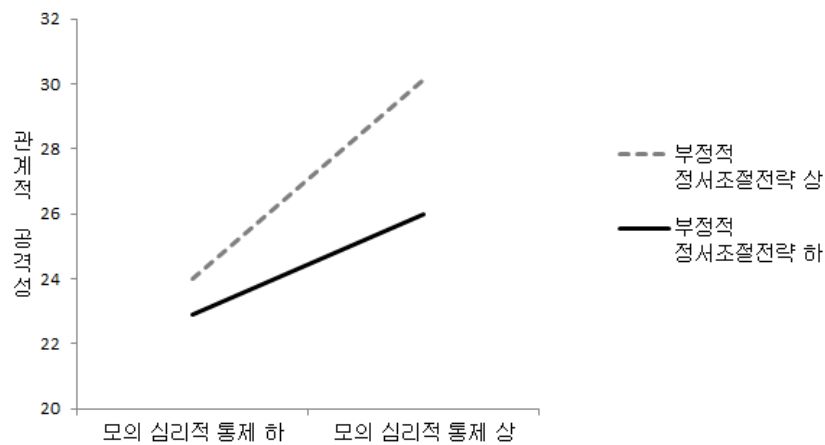


그림 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 효과

표 4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변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관계적 공격성
부정적 정서조절전략	
상집단($n = 220$)	$\beta = .42^{***}$
하집단($n = 211$)	$\beta = .22^{**}$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모두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긍정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정적 정서조절전략 모두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정서조절전략은 관계적 공격성에 부적인 영향을,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중학생이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가할 경우 자녀의 심리, 사회적 욕구 충족을 방해하여 격앙된 자녀의 분노와 좌절이 관계적 공격성으로 표출된다는 수용-거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Nelson et al., 2013). 부모로부터 심리적 거부를 경험함으로써 분노와 슬픔을 경험할 경우 어떤 유형이든 공격성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특히 높은 수준의 심리적 통제를 가하는 부모의 자녀의 경우에는 외현적인 공격성이나 반사회적 행동이 또다시 부모의 애정 철회 등 거부를 야기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분노, 좌절의 부정적인 정서를 눈에 띄지 않는 교묘한 방식으

로 표출할 수 있는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애정을 철회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경험한 경우, 부모의 그러한 행동을 모방하여 또래관계 속에서도 우정철회나 집단 소외의 방법과 같은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는 사회학습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부모 자신의 기대나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애정철회와 죄책감 유발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녀에게 내적인 압박을 가하기보다는 그 대안으로 귀납적인 대화 방법을 통하여 자녀 스스로 내적 동기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Hoffman & Saltzstein, 1967).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자녀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왜 다르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에 대해 부모가 자녀와 함께 논리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부모와 자녀의 기대나 요구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동시에 자녀는 부모와의 논리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모방하여 또래관계 안에서 상대방 친구와의 갈등 속에 적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 중 하나는 주 양육자로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만 초점을 두어 연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모두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를 계획할 때 아버지의 역할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Rogers et al.(2003)에 따르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보다 평소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많지 않다면 자녀는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를 더욱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자녀의 상승된 분노와 좌절감이 관계적 공격성으로 표현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의 특성과 양상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및 시행된다면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중학생의 긍정적 정서조절전략은 관계적 공격성에 부적 영향을, 부정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은 관계적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배재현, 최보가, 2006; Peled & Moretti, 2007)를 지지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부정적인 상황과 정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등의 문제

중심적이고 적극적인 인지적 대처를 할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낮출 수 있어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표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해석될 수 있다(민귀식, 2001; Remillard & Lamb, 2005). 반면에 부정적인 정서나 상황을 수동적, 반복적으로 떠올리거나 타인과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을 자주 사용할수록 슬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의 지속성과 강도가 높아진다(Peled & Moretti, 2007). 이렇게 높아진 슬픔, 분노의 정서는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관계적 공격성을 촉발시킬 수 있다(배재현, 최보가, 2006). 뿐만 아니라 강렬한 부정적 정서는 적응적인 정보처리능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또래와의 갈등상황과 상대방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하도록 하여 상대방을 해할 목적으로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집단에서 소외시키는 관계적 공격 행동을 이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Crick & Grotpeter, 1995).

따라서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을 이전보다 덜 사용하도록 돕는 동시에 긍정적인 정서조절전략을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 훈련하는 개입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변증법적 행동치료(Miller, Fletcher & Kabat-Zinn, 1995; Kabat-Zinn, 2003)는 부정적 정서조절전략과 같은 인지적 왜곡에 대한 통제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긍정적 정서조절전략을 학습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고되어왔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시키는 부정적 정서조절 전략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부정적 정서조절 전략을 통해 강화되는 부정적인 정서가 무엇이 있는지 말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사고와 정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상담자가 긍정적 정서조절전략의 기술적인 방법을 가르치고 내담자 스스로 긍정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할 때 느껴지는 긍정적인 정서와 생각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습시킴으로써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관계적 공격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자녀의 정서조절 능력의 발달은 가족 내에서의 사회화 과정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 부모가 중학생 자녀에게 효과적인 정서조절 방법에 대한 모델링과 코칭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부정적인 정서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비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시키는 모습이 아니라 문제를 재해석하고 계획을 세우며 수용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정서를 순화시키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가 자

연스럽게 효과적인 정서조절의 실제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긍정적 정서조절전략,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이 조절하는지를 검증한 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였으나 긍정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더라도 타인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등의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을 덜 사용한다면 관계적 공격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전미숙, 손은정, 2013)에서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던 바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학생 자녀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받아 분노,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였을 때, 정서 중심의 대처를 덜 한다면 부정적인 정서의 지속과 강도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통제를 많이 받으면서 부정적 정서조절 전략을 자주 사용하는 중학생들은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부정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므로 단순히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의 사용을 감소시키는 중재 방안 이외에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과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을 동시에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자녀에게 높은 심리적 통제를 가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한 부모교육을 통하여 심리적 통제를 대체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양육 행동을 교육하는 개입과 함께 중학생의 슬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표출하고 조절하는 행동기술 등 다양한 차원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다면 (Leff et al., 2010)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을 밝히면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이므로 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단정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관계적 공격성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부

모의 심리적 통제를 더 높게 지각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문제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이끌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종단적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가능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인 중학생들로 하여금 동일한 척도에 반복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때 질문지의 구성상 아버지에 대한 척도에 먼저 응답한 후 어머니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응답이 비교표준(comparative standard)이 됨으로써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응답에 영향을 미쳐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평정이 실제보다 유사해졌을 가능성이 있다(Moore, 2002).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질문순서효과(question order effect)를 완화하기 위해 아버지에 대한 척도와 어머니에 대한 척도 사이에 다른 주제를 다루는 완충 질문(buffer items)을 삽입한다면(Lasorsa, 2003)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측정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 중에 개인의 인지적 변인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고려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질투, 자기통제력 등의 정서, 행동과 관련된 개인내적 변인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지식, 또래 관계의 질과 같은 개인외적 변인을 고려한다면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시사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뿐 아니라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를 포함하여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특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모두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예방함에 있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 행동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둘째,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로 검증해 왔으나,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특히,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을 줄이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받으면서도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을 자주 사용하는 중학생에게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참 고 문 헌

- 강다점, 장재홍 (2013). 여중생의 시샘, 질투 및 분노가 또래관계에서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3), 449-470.
- 교육과학기술부 (2012).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김민정, 도현심 (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 김소희 (2004). **스트레스 사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민귀식 (2001).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와 공격성과의 관계**. 경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재현, 최보가 (2006). 남자 청소년의 우정관계에서 발생하는 질투정서와 적응적 정서조절전략 및 공격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4(6), 87-102.
- 서미정 (2012). 아동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변화유형 및 고위험 변화집단 예측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38, 157-186.
- 신유림 (2010). 어머니의 애정철회, 유아의 정서조절 및 언어능력이 유아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8(7), 15-22.
- 이 흥, 김은정 (2012). 청소년의 공격성 하위 유형에 따른 인지 및 정서 특성. **청소년학연구**, 19(1), 227-250.
- 전미숙, 손은정 (201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자기통제와 부적응적 정서조절의 조절효과. **청소년 시설환경**, 11(2), 19-27.
- 전숙영 (2007).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및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과 자기통제력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169-179.
- 한영경 (2008).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은미 (2014).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여중생의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현지은 (2010). **남녀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사회불안, 관계적공격성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California: Sage Publication.
- Archer, J. (2004).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in real-world settings: A meta-analytic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8(4), 291-322.
- Bandura, A. (1978). Social learning theory of aggression. *Journal of Communication*, 28(3), 12-29.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In B. K. Barber (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pp. 237-288).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rrett, K. A. (1994). Functionalist perspective to the development of emotions. In F. Michael, & G. Sharon (Eds.), *What develops in emotional development?* (pp. 109-133). New York: Plenum Press.
- Blitstein, J. L., Murray, D. M., Lytle, L. A., Birnbaum, A. S., & Perry, C. L. (2005). Predictors of violent behavior in an early adolescent cohor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cross genders. *Health Education & Behavior*, 32(2), 175-194.
- Bowie, B. H. (2010). Understanding the gender differences in pathways to social deviancy: Relational aggression and emotion regulation.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24(1), 27-37.
- Brame, B., Nagin, D. S., & Tremblay, R. E. (2001).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physical aggression from school entry to late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2(4), 503-512.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 Crick, N. R., & Nelson, D. A. (2002). Relational and physical victimization within

- friendships: Nobody told me there'd be friends like thes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6), 599-607.
- Crick, N. R., Ostrov, J. M., & Werner, N. E. (2006). A longitudinal study of relational aggression, physical aggression, and children's social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2), 127-138.
-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8), 1311-1327.
- Garnefski, N., Kraaij, V., & van Etten, M. (2005). Specificity of relations between adolesc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sychopathology. *Journal of Adolescence*, 28(5), 619-631.
- Grotjeter, J. K., & Crick, N. R. (1996).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7(5), 2328-2338.
- Hodgson, J. W., & Fischer, J. L. (1979). Sex differences in identity and intimacy development in college yout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8(1), 37-50.
- Hoffman, M. L., & Saltzstein, H. D. (1967). Parent discipline and the child'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45.
- John, O. P., & Gross, J. J. (2004). Healthy and unhealthy emotion regulation: Personality processes, individual differences, and life span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72(6), 1301-1334.
- Kabat-Zinn, J. (2003). Mindfulness-based interventions in context: Past, present, and future.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10(2), 144-156.
- Kuppens, S., Laurent, L., Heyvaert, M., & Onghena, P. (2013).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multilevel and sequential meta-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49(9), 1697-1712.
- Lasorsa, D. L. (2003). Question-order effects in surveys: The case of political

- interest, news attention, and knowledge.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0(3), 499-512.
- Leff, S. S., Waasdorp, T. E., Paskewich, B., Gullan, R. L., Jawad, A. F., & MacEvoy, J. P. et al. (2010). The preventing relational aggression in schools everyday program: A preliminary evaluation of acceptability and impact. *School Psychology Review*, 39(4), 569-580.
- Lerner, R. M., & Steinberg, L. (2009).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pp. 1-42). New Jersey: John Wiley & Sons.
- Loukas, A., Paulos, S. K., & Robinson, S. (2005). Early adolescent social and overt aggression: Examining the roles of social anxiety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4), 335-345.
- Maccoby, E. E. (1992). The role of parent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An historical over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8(6), 1006-1023.
- Malove, S. C. (2012). Using relational theory to treat adolescent girls victimized by social aggression.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1(2), 1-12.
- Marsee, M. A., Kimonis, E. R., & Frick, P. J. (2004). Peer conflict scale. *Aggressive Behavior*, 30(5), 430-439.
- Michiels, D., Grietens, H., Onghena, P., & Kuppens, S. (2008).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pe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Review*, 28(4), 522-540.
- Miller, J. J., Fletcher, K., & Kabat-Zinn, J. (1995). Three-year follow-up and clinical implications of a mindfulness meditation-based stress reduction intervention in the treatment of anxiety disorders. *General Hospital Psychiatry*, 17(3), 192-200.
- Moore, D. W. (2002). Measuring new types of question-order effects: Additive and subtractive. *Public Opinion Quarterly*, 66(1), 80-91.
-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Myers, S. S., & Robinson, L. R. (2007). The role of the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2), 361-388.

- Murray, K. W., Dwyer, K. M., Rubin, K. H., Knighton-Wisor, S., & Booth-LaForce, C. (2013). Parent-child relationships,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ggression: Maternal and paternal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7(10), 1-13.
- Nelson, D. A., & Crick, N. R. (2002).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mplications for childhoo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Intrusive Parenting*, 161-189.
- Nelson, D. A., Hart, C. H., Yang, C., Olsen, J. A., & Jin, S. (2006). Aversive parenting in China: Associations with chil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77(3), 554-572.
- Nelson, D. A., Yang, C., Coyne, S. M., Olsen, J. A., & Hart, C. H. (2013).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dimensions: Connections with Russian preschoolers'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4(1), 1-8.
- Peled, M., & Moretti, M. M. (2007). Rumination on anger and sadness in adolescence: Fueling of fury and deepening of despair.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6(1), 66-75.
- Peled, M., & Moretti, M. M. (2010). Ruminating on rumination: Are rumination on anger and sadness differentially related to aggression and depressed mood?. *Journal of Psychopathology*, 30, 479-491.
- Reed, T. J., Goldstein, S. E., Morris, A. S., & Keyes, A. W. (2008). Relational aggression in mothers and children: Links with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 adjustment. *Sex Roles*, 59(1-2), 39-48.
- Remillard, A. M., & Lamb, S. (2005). Adolescent girls' coping with relational aggression. *Sex Roles*, 53(3-4), 221-229.
- Rogers, K. N., Buchanan, C. M., & Winchell, M. E. (2003). Psychological control during early adolescence links to adjustment in differing parent/adolescent dyad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3(4), 349-383.
- Rohner, R. P., & Pettengil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2), 524-528.
- Sullivan, T. N., Helms, S. W., Kliewer, W., & Goodman, K. L. (2010). Associations between sadness and anger regulation coping, emotional expression, an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among urban adolescents. *Social Development*, 19(1), 30-51.
- Tiet, Q. Q., Wasserman, G. A., Loeber, R., McReynolds, L. S., & Miller, L. S. (2001). Developmental and sex differences in types of conduct problem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0(2), 181-197.
- Yang, C., Hart, C. H., Nelson, D. A., Porter, C. L., Olsen, S. F., & Robinson, C. C. et al. (2004). Fathering in a Beijing, Chinese sample: Associations with boys' and girls' negative emotionality and aggression: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father involvement.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3(2), 185-197.

ABSTRACT

The effec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on relational aggression amongst middle school students

Lee, Hayeon* · Park, Ju Hee**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on relational aggression amongst middle school students and addressed the question as to whether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had any moderating effect up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relational aggressio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431 middle school students from three middle schools.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descriptive statistics and hierarchical regression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level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both mothers and fathers and positive emotion regul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increased the levels of relational aggression, whereas negative emotion regulation decreased the levels of relational aggression. In addition, negative emotion regulation tended to moderate the effec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relational aggression whereas positive emotion regulation did not.

Key Words : relational aggressio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psychological control

투고일 : 2014. 6. 9, 심사일 : 2014. 8. 1, 심사완료일 : 2014. 8. 11

*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